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

생명의 빛 오오라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엔 써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을 마귀가 점령하여 마귀가 하나님의 신을 씨줄, 날줄로 쪼개서 오늘날 별들과 태양과 모든 만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가 에워싸고 있는 상태가 별이요, 태양이요, 지구인 것입니다. 그리고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마귀가 에워싸고 있는 상태가 이 세상 만물이요,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이 병존하고 있는 병존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일찍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로 성경에 창조했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요, 마귀에 의해 조작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마귀가 아담과 해와 하나님을 점령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아담은 남자가 되고 해와는 여자가 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이지,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 가운데에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흠으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과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비합리적인 논리인 고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로 분명히 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와 입으로 모았음이라.”라고 써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는 거요? 짝이 있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조금 밖에 없어요? 조금 밖에 없어요? 왜 그러나 하면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고로 그 책 자체가 마귀 책이어야 맞아요, 하나님의 책이어야 맞아요? 마귀 책이어야 맞아요? 마귀 세상에서 마귀 종이 사람이 그 책을 쓴 고로 그것은 마귀의 책이지, 하나님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핑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단체는 마귀 종들이고 고로 마귀 종들의 하나님은 마귀인 거요? 그리고로 마귀 말이 들

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성경 가운데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창세기서 1장 27절에 써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요, 말씀이 되는 거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몸속의 피 자체가 하나님의 피인 고로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자체가 하나님의 빛인 고로 고주파를 이용해서 사람을 짚을 때에 오오라가 찍혀 나오는데 오오라가 빛이요? 하나님의 피가 있는 까닭에 그 빛이 찍혀 나오는데 오오라가 빛이요? 아니면 빛이 찍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생명이 있는 물질은 다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짜 의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인 고로 오오라가 찍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인 것을 몰라야 하는 단계가 있다면 그건 마귀의 집안입니다. 성경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고 써어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신이라는 거요? 그런데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피가 후손인 사람 속에 있는 고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이 성경에 뚜렷하게 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서 14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와 자녀니라.”라고 써어 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식이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민족종교들은 옛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사람이 전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종교에서는 인내천 사상을 외치고 있는데 인내천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하



구세주 조희성님

님이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 오신 고로 단군 할아버지 입에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나왔을 까요, 사람의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겠지요?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가 사람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고로 우리 민족이 이 지구땅위에서 가장 깨끗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2절에 “지금은 너희가 여호와와 자녀니라.”라고 뚜렷하게 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써어 있는데, 가짜 구세주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에 없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없는 자식이 곧 아들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자, 죽을 위기에 처한 그 가짜 구세주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실직고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가짜 구세주는 알았던 고로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 되면 마귀세

상이 망하게 되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사람들을 세뇌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밖에 없다고 말을 해놔야,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요? 가짜 구세주는 마귀의 영을 받은 마귀세끼인 고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하여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로 마귀 영을 받은 가짜 구세주를 믿는 사비비 종교단체는 마귀 당이 분명하죠?

마귀 당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도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영적 말인 고로 영적 부활로 해석을 해야지, 육적 부활로 해석을 하면 그게 성경 말의 진의를 왜곡하는 거요? 영적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 무덤이 되는 마귀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영, 곧 사람 속에 생명의 영이 되는 양심이 마귀 속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죽이고 마귀가 앉아 있었던 자리인 나라는 주체의식이 될 때에 비로소 생명으로 거듭났다가 되면서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단의 후손 가운데서 나와

성경 창세기서 49장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흠이 함께하는데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라고 써어 있는데 ‘흠’이라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것이요, 짐승은 마귀를 의미하는 고로 사자새끼는 마귀새끼를 말하는 거요? 사자라는 건 짐승들 중에서 왕인 고로 유다 족속에서 나온 가짜 구세주가 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수천 년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만 왕 노릇한다고 했죠? ‘실로’가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 구세주인 고로 구세주가 나타날 때까지만 왕 노릇을 한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와서 마귀 세상을 전멸시켜서 없애버리는 고로 마귀가 왕 노릇을 못하게 되고 여지없이 소멸되고 마는 거요?

성경 창세기서 49장 16절에는 또렷하게 써어 있는데,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첩경의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뜨리리라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야곱이 한 말이요? 야곱이 열 두 아들 가운데 단에게만 심판권을 줬고, 단이 첩경에 독사가 되어가지고 말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왕들이나 말을 탔지, 보통 사람들은 말을 못 탔던 고로 말 탄 자를 떨어뜨린다는 건 마귀 세상의 왕인 가짜 구세주를 떨어뜨려 목이 부러져서 죽게 한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는 말을 야곱이가 했는데 자기 아들을 향해서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자기 아들인 단의 핏줄 속에서 구세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고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구세주는 단지파에서 나오는 것이요, 유다지파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구세주는 유다지파의 자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흠이 함께하는데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라는 말을 한 것은 구세주가 나타날 때까지만 왕 노릇하지 구세주가 나타났면 왕 노릇을 못한다는 고로 마귀를 죽여서 없애버리니까 죽어서 없어진 놈이 왕 노릇할 수 있

요? 할 수가 없는 거요? 이렇게 창세기서 49장에는 또렷하게 써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한국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에 써어 있어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9절에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 골,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이 써어 있죠? 옛날부터 한국 나라와 일본 나라를 가리켜서 동방나라라고 했던 고로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극동 사령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로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의인은 바로 하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사람을 일으키는데 이 세계 모든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하고 절을 한다는 소리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고로 자존심이 아주 강하죠? 그런데 구세주는 전지전능자인 고로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이 우주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고로 우주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세계 왕들이 전부 와서 큰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요? 서양 사람들은 키가 크고 얼굴이 희고 아주 잘 생겼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와서 절을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 고로 그런 거요?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라는 사람도 일본에 가서 “장차 조선 나라가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루마니아에 있는 게오르규라는 소설가 역시 똑같은 말을 했던 거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장차 조선 나라는 빛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은 앞으로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가는 빛에 의해서 세계 만민이 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성경 이사야서 60장에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이 나와 세계 만민들이 그 빛을 보고 은금보화를 싣고 구세주가 있는 곳으로 온다.”는 말씀이 써어 있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20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예루살렘의 북쪽 기브온에 히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1차로 예리고를 점령하고 2차로 아이를 점령할 때에, 그 예리고와 아이에도 히위 족속이 거주하였습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 히위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과 아이 사이의 세계 땅 마르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 남쪽에 히위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패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예리고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되었소.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하오. 엄중히 경고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심하고 들으시오!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는 물건을 누군가가 탐을 내어 가지고

간다면, 그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이 전멸당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유다지파에 속하는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도적질하였습니다. 아간에게는 조상대로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 중에 세라였습니다. 그 쌍둥이는 시아비지 유다와 며느리의 동침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간의 가문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간은 자기 자신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히 지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부정한 일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줄도 모른 상태에서, 아이(Ai)로 진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예리고성에서 서북쪽 10킬로미터쯤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말대로 아이성의 주민들은 1만2천의 소수였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이 2천 명이나 3천 명의 군사로도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8장 여호수아》

2절: 여호수아와 히위 사람

그러나 군사 3천을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간 이스라엘은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전하여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담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법계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쓴 채 저를 때까지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나니, 이는 그들이 원수의 손에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내일 아침에는 열 두지파별로 나오게 하라. 그 지파들 중

에 구린내가 나는 지파만 남게 하여 열렬종대로 세우라. 그리고 그 지파의 사람들을 너 여호수아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 도둑질한 자가 너 앞으로 지나갈 때면, 너는 그 자의 몸에서 나는 구린내로 너의 코를 막게 되리라. 또한 그 자의 몸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를 보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유독 유다지파의 무리에서 구린내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를 열렬종대로 세우고 여호수아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는데, 무리의 절반 정도 지나갔을 때 여호수아의 코에 구린내가 확 풍겨져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면전에 있는 유다족속의 아간에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감추는 부정을 행하였소?”

하지만 아간은 팔짱 휘면서 “왜, 나를 도둑으로 취급하시오? 생사람 잡지 마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뿔뿔히 찢어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뿔뿔히 찢어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뿔뿔히 찢어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가 극구 부인하는 아간의 정막을 파보도록 명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사자가 정막의 정막 안에 감추어져 있던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자, 그제야 그 유다족속의 아간은 여호수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찢쩍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아간의 정막안에 감추어둔 시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여호수아 7:21)

이 광경을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의 아들들이 전날 아이성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유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유가족들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들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아간을 끌어다가 아간의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아간의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라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성난 유가족들에게 아간과 그의 가족을 용서해주고 단지 그가 흠된 부정한 물건만 없애버리면 된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젤라